

2023.05.14.(주일) 레위기9:8-24 사역의 시작 이창엽 목사님

8.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11.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12.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4.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15.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8.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좋으신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고, 부족한 자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자칭 타칭 SG의 아이돌 이창엽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시작>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일설교가 이렇게 도적과 같이 임했습니다.

며칠 전 영월에 사시는 SG공동체 목원분을 심방 가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가시는 초원님과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초록초록한 풍경을 보면서 시원스럽게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성훈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

초도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일설교하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아, 나 잘못된 거 없는데...’였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제가 죄인이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심방을 가는 집사님 집의 주소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이었습니다. 산세가 아름답고 배산임수의 경치가 좋은 곳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부터는 그 집을 찾아가는 길이 무릉도원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길을 알려주던 내비게이션도 긴장을 했던지 비포장 도로~ 산길~ 막다른 곳으로 저희를 잘못 안내해 주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 이것이 내 앞길을 암시해 주는 것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집사님 댁에 도착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주일 큐티 본문을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제목을 본 후 제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목사가 된 우리들교회에서 첫 번째 하는 주일설교입니다. 이 제목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은 제가 우리들교회에 첫발을 들인 게 2004년이었는데 19년 만에 목사가 되어서 이 첫 번째 주일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보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때가 되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깨달아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잘 참아주신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제가 목사로 정신 차리고 사역하는 데 1등 공신인 장인, 장모님, 그리고 친가의 가족들, 공동체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웃으시나요?^^ 저는 심각한데 ^^)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인제사장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역자나 평원지기, 초원지기, 마을지기, 목자님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역의 시작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입니다. (8-14절)

8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으며 이미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론에게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죄의 싹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죄의 싹을 그냥 두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에 파리나 바퀴벌레가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면, 아주 작은 죄의 문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가정을 살리는 사역에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내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깨닫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혼도 가정도 살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은 구체적으로 제물과 그 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번제에 드려진 제물, 즉 번제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 1절을 보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10:1)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 죄를 보게 하는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큐티이고, 목장예배고, 수요/주일예배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 죄를 보며 힘들지만 수치를 드러내며 회개하며 갈 때, 주님은 소망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족, 지체를 살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나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초심을 잃을 때마다 이 누군가를 통해 속죄제와 같은 회개를 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아!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은 전도사”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2004년에 우리들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자가 아니라 청년부 새가족으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통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대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기억과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이 아닌 기복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분별없이 예언기도, 기복의 말씀만을 따라가 결국에는 집이 망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던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 누나를 통해 당시 강도사님이셨던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직장인을 위한 토요 큐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던 중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세요.”라는 말씀이 저에게 주신 복음으로 들려 우리들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들교회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빗지고 환란 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런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분들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예배시간 내내 은혜 충만하였고, 찬양 시간에는 그 가사가 제 이야기 같아 눈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찬양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주일 1, 2, 3부 찬양 인도와 수요 찬양 인도를 2년여 정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고난이 감해지고 살만해지니 제 안에 교만의 싹들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2년여 정도 들었으니 이제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의 좋은 설교는 들어야죠. 그런데 주중에도 들을 수 있는데 1부 예배 끝나자마자 2, 3부 때는 찬양인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그것도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설교가 한 번 듣고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어야 하는데 **안 들리니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내 죄가 안 보이니 더 이상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도 꽤 많이 되었는데 새로 부임한 신임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제 이름은 몰라도 제 죄패가 무슨 전설처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몰라도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은 전도사’로 이야기하면 다 알게 되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SG공동체 심방을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은 분이세요?”라고 물어보시면서 “난 누군가 했네~ 우리 목사님이셨네~” 하는 소리에 한바탕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난 신앙생활을 오래해서..’ 또는 ‘목사님 설교는 매번 내 죄를 봐라, 별인생 없다, 고난이 축복이다 하시며 같은 소리 하신다’고 저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러다가 19년 걸렸습니다. 19년 된 저도 이제 조금 제 죄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먼저 내 죄를 보는 속죄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2절 말씀에 속죄제를 드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번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린 것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함으로 들려진 번제에 대하여,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말하면서 핍계를 둡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론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홀과 함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를 돕고 말을 잘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론은 오히려 흠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동요하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아론은 이 사건의 당사자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흠과 죄도 많은 아론이지만, 계속되는 제사장 위임식의 여러 일들과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택함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제사장으로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판교 SG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G공동체는 우리들교회 시니어 공동체를 이르는 말로, 휘문과 판교의 실버(은빛), 골드(금빛) 목장의 성도님들의 목장을 말합니다. 제가 SG공동체를 맡게 된 것은 제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 들은 말씀은 “이 목사가 장인, 장로님과 함께 사니까 SG공동체 하면 좋겠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죄패 중에 하나가 장인, 장로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들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아내나 집이 다 망해서 우리들교회로 오게 되었고, 각자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당시 청년부 담당 김은휴 전도사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아내의 직장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리셨고,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님도 저희의 교제를 반대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담임 목사님이 두 사람이 다 가정이 힘든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엽이 제 믿음 하나도 없어~”. 역시 담임 목사님은 분별의 끝판왕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 결혼할 거 다 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방주사 놓아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후에 저희는 공동체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든 두 가정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결국에는 장인,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 두 분의 도움을 받으며 사니까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에서 저희가 오히려 두 분을 도와드려야 할 때가 오니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되도록 집에 늦게 가자”였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 별명이 ‘사찰 전도사’였습니다.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니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인, 장로님을 힘들어하는 저에게 SG공동체 사역을 하라고 하시니,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성-아이성-은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리품을 처리하지 않고, 몰래 숨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아가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해 지파들을 모두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아들 아간이 뽑혔고, 그의 장막 안에서 몰래 감추었던 전리품을 찾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교회에 60여 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왜 굳이 제게 SG공동체를 맡기셨을까? 묵상해 보니 **제가 아간과 같이 장인, 장로님을 무시하는 죄를 꼭꼭 숨기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비 뽑아 이제 그것을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집에 있는 두 분을 못 섬기니 800명의 장인, 장모님을 섬기라는 **축복의 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니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어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흠도 많고, 죄인인 나**를 제사장

으로 택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이 구원을 위해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 적용 질문드립니다.

Q. 매일, 매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큐티입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 핸드폰 보기, 인터넷 검색입니까?

Q.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2.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21절)

15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신 후에 다음으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서 특이한 점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로 다양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가 다양한 만큼 그들이 겪는 삶의 문제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헌신하는 제사를 드린 것은 온전히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을 잘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도록 돕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섬기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여호와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과 섬김을 해도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상대도 힘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1절에 나온 것 같이 아론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께 요제로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은 일반적으로 ‘마음’을 상징하고, 우편 뒷다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제로 흔들었다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백성들 간의 화목함을 이루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판교 SG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G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마음과 힘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SG공동체는 65세 이상의 성도님들 중 수요목장과 주일목장, 일부 주중목장의 성도님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SG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다는 것과 교회 가시는 것만큼 병원도 자주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 나이에 내가 뭘~"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많으시고, 시간관념이 철저하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SG공동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코리안 타임이 없습니다. 너무 일찍 오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배반하지 않으시는 의리있는 분들입니다. 결정적으로 교회와 나라와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러기에 SG공동체 성도님들은 기도와 섬김에 힘쓰십니다. 그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SG공동체에서는 기도회로 모이는데, 그날 본문으로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라와 교회,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희 SG성도님들이십니다. 정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성도님들이 여러 기도제목으로 함께 중부하며 기도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60명 정도 모였는데, 지난 4월 기도회에는 2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SG공동체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장례지원팀 분들이십니다. 저희 장례지원팀은 교회 장례 중 새가족이나 부득이하게 적은 수가 모이는 장례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며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위로를 전하러 갔는데 내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영정사진에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그중 한 마을님은 연세가 83세이신데, 웬만한 장례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 때문에 71세 되신 목사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 하시고 너무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론과 같이 마음과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해 제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SG목장의 목사님들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70대 초반이신 시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집사님이 시아버지가 잘 나가시던 아파트 경로당을 언젠가부터 안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인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팔십 먹으신 형님들이 자꾸 ‘커피 타와라’ 심부름을 시켜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은빛 목장의 목사님들도 적은 나이가 아니신데 목원분을 섬기시느라 애를 쓰십니다. 목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대로 섬겨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려고 노력하십니다. 특히 저희 SG공동체에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주 연락해주는 것을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SG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녀 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전화 좀 자주 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다니시는 성도님들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방을 다니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드리시고, 안부 물어봐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모이시는 골드목장의 목사님들의 경우도 목장 인도를 하시기 위해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공책에 빼곡히 적으시느라 손도 아프시고 눈도 많이 아프실 지경입니다. 그래도 목원분들이 와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SG공동체분들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섬김으로 나아가시는데,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님을 깨달은 자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과 힘을 다해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적용 질문드리겠습니다.

Q.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내가 핑계 대는 것은 나이, 시간, 물질, 자녀 등 무엇입니까?

Q.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3. 백성을 축복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22-24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며 번제단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서 마지막 순서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된 우리도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함께한 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럼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무엇이였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6:24-26)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주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복이 그 유명한 ‘바라크의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바라크의 복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백성들에게 주시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팔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취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말씀이 들리는 복이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누리는 팔복산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내게 왔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고난에서도 지켜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심방을 간 무릉도원면에 사시는 집사님은 지난 3월에 외국인 남편분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목장에 참여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간 조카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 집사님이 고난도 많으시고, 집에 누구를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조카인 자신도 이모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투병을 후에 돌아가신 미국인 남편분의 장례를 우리들교회에서 해주시고, 목자님이 지극 정성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아, 목장분들이 오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이 집 뒷산에서 솔잎 하나하나를 따다가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준비해 놓으시고, 시레기로 맛있게 된장국도 끓여 놓으셔서 같이 가신 분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지난 3월에 돌아가신 남편분을 화장하고, 아직 유골을 하관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집 근처 양지바른 곳에 수목장으로 하관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성경 대신 삽을 들고 유골을 묻을 땅을 팠고, 같이 가셨던 분들도 하관예배에 참석하시고, 흙을 한 삽, 한 삽 넣으시면서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라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남편이 먼저 소천하신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집사님이 우리들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셨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을 위로하시는 약재료가 생기셨으니, 남편분이 천국에 가시면서 집사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해석해드리며, 이제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인생 되시라고 축복해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카분이 우리 이모가 이렇게 목장

식구를 대접하며 예배하시는 것은 기적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신 목자님이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와 함께 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된 우리의 사역은 지체를 축복하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 적용 질문드리겠습니다.

Q.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축복해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영혼구원과 가정중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의 시작은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우리가 지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죄 많고, 흠 많은 저와 우리들을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구원과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일의 시작은 먼저 내 죄를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보는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그래서 힘든 지체를,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호와와 복-바라크의 복-으로 가족을, 지체를, 이웃을 축복하며 팔복산으로 함께 오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세를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망하게 한 아론과 같이 살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말씀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제사장 삼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영혼구원과 가정을 세우는 사역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명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시작은 내 죄를 보는 것부터라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를 보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 말씀이 없어 깨어지는 가정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라크의 복으로 지체를 축복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 죄를 먼저 보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권의 왕노릇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차별금지법은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태아보호법은 속히 제정되어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이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흘러 나아가 열방에 바라크의 축복을 전하는 사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러지는 부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SG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특별히 16회 THINK목회자 세미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약]2023.05.14.(주일) 레위기9:8-24 사역의 시작 이창엽 목사님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인제사장주의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역의 시작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입니다. (8-14절)

Q. 매일, 매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큐티입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 핸드폰 보기, 인터넷 검색입니까?

Q.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2.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21절)

Q.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내가 핑계 대는 것은 나이, 시간, 물질, 자녀 등 무엇입니까?

Q.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 백성을 축복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22-24절)

Q.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축복해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